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이 승 한

## 더불어 사는 마음

서기 2000년이 눈 앞에 다가옴에 따라 지나가는 20세기를 되돌아 보고 새로운 21세기를 다짐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외 여러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일고 있는 것 같다.

보통사람들도 해가 바뀔 때가 되면 흔히 지난 해를 살펴보고 이것을 거울삼아 새해의 도약을 기하기가 일수이다. 하물며 서기 2000년은 정말 보통의 해가 아니다. 100년을 단위로 하여 세월을 자른 세기라는 것이 바뀌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1000년이라는 긴 기간을 단위로 시대를 자르는 밀레니엄도 바뀌어, 제2밀레니엄이 가고 제3밀레니엄이 들어서는 해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 일상사에서 한발짝 물러나서 좀 먼 곳에서 시야를 넓혀 지나가는 일들을 살필만한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럴테면 산업보건의 유래, 본질, 접근방법 또 산업보건을 둘러싼 환경, 노동, 일반 사회의 흐름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며 새로 들여올 것은 들어오는 계기로 삼을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이것은 100년,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놓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여야 현재에 관한 일들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근년에 들어서 자주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말 가운데에 공생(共生)이라는 것이 있다. 주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에 쓰는 말이다. 인간사회 내부의 상호관계를 말할 때에는 공존(共存)이라는 말도 자주 쓰인다.

공생이라는 말은 원래 생태학의 용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Symbiosis이다. 이것은 생태계 속의 생물이 서로 서로 이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공리공생(共利共生)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은 자연이고 또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생명체이다. 인간사회 내부에서 말하자면 나와 나의 동료 또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인류가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 가능한 삶과 번영을 누리려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인간사회가 평화와 안녕을 누리려면 사회의 여러 구성원이나 나라들이 서로의 다원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는 18세기에 들어 벌써 과학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공업화에 나섰고, 그 결과 부를 축적하고 물질

문명의 진전 속에 생활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치를 잊고 지나치게 자기본의주의에 빠진 나머지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오늘날의 산업보건문제 같은 것을 야기시키고, 또 식민주의로 말미암아 남의 나라를 괴롭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20세기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욱 고도화되어 인류가 대규모의 자연개조 능력마저 얻게 된 시대로 꼽힌다. 그렇다고 능력의 상당 부분이 경제성장과 전쟁에 동원되어 대규모의 환경파괴가 진행된 시대이기도 하였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상징되는 물질문명의 극대화는 무역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끝없는 자원과 에너지획득 경쟁으로 이어졌다.

개발도상국가들은 폭발하는 인구증가에 대응하고 또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속속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세계 규모의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었다.

경제성장을 빈곤퇴치와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시키는데 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지역과 기술의 개발을 서두르는 풍조와 몸부림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래 인간생활의 풍요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경제성장은 어느 사이엔가 목적으로 둔갑하여 경제제일주의, 성장지상주의가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또한 풍요로운 인간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한 노력에서 얻어진 인간의 자연개조 능력이 현실적으로는 인간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한 노력에서 얻어진 인간의 자연개조 능력이 현실적으로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존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중심주의가 오도되어 자연환경을 상품생산에 필요한 자원으로만 보거나 상품유통에 필요한 공간으로만 간주함으로써 환경으로부터의 수탈이 정당화 되면 필연적으로 물리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환경파괴는 일어나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유한 문화를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최저한의 물질적 정신적 기반마저 어렵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

다행히 20세기는 사람과 자연과의 공생이 인류생존을 놓고 지구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하였다.

또한 환경파괴의 측면에서 경제개발과 더불어 큰 요인으로 작용하던 대규모의 전쟁행위도 평화공전의 기운 속에 살아지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실현하기 쉬운 것만도 아니다. 인간이 얻게 된 자연개조 능력을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알맞게만 살 수 있도록 사회경제, 기술개발, 생활습관, 생활관 등에 걸쳐 크나 큰 개조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더불어 사는 마음을 기르려면 지나친 인간중심의 이기심을 절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나 잘 먹고 잘 살려는 인간본능을 적절하게 억제하고 천지만물이 돌고 돌아 이익과 불이익이 순환하는 이치를 깨달아야 더불어 사는 길은 트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산업보건의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시기에 이른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